

#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본격화... “사람 중심 시구현 앞장”

###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 개최 첨단 3지구 자원·인프라 집약 생태계 조성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2019년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의 주요과제로,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자원과 인프라가 집약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939억 원을 투자한다.

융복합단지의 핵심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연산량 88.5PF 규모로서,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축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도구와 인공지능 반도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등, 세계적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착수를 계기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 등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혁신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착수식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최기영 장

관의 축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비전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 발표와 광주시-민간사업자(NHN)의 투자협약 등이 진행됐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향한 혁신적 도전을 통해 광주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에 앞장서 달라”면서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고급·전문 인재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방문해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에 참석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은 2019년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지역 내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확산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50명의 학생을 선발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박사급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자기주도형 교육과정 개설, 기업가정신 교육 및 산학 협력을 통한 인턴십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참석해 투자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며, 지역 특화 산업인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등 3대 특화분야에 대한 융합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조성될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고기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광주지역의 교육·연

구·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기동취재본부

##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3분기까지 이어질 듯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이 오는 8일부터 부평 2공장을 50%만 가동키로 하는 등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됐다.

한국지엠은 4일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공급이 여전히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제네럴모터스(GM)의 글로벌 구매·공급망에 통합된 한국지엠은 8일부터 부평 2공장의 가동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한국지엠 구매 조직은 현재 부품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부품업체들의 반도체 수급에 대한 방안을 찾고 GM과 한국지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품 수급에 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해당 공장에 대한 운영은 매주마다 상황을 살펴 생산계획을 확정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건 지난해 코로나 19 이후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반도체 업체가 스마트폰과 PC 등 IT용의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간 역성장했던 완성차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살아나면서 하반기 이후 자동차 수요는 빠르게 회복했고, 생산을 늘리려던 자동차업체와 반도체 업체는 서로 수급 불일치 상황에 처했다.

또 친환경·전장화 가속화로 ADAS(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DCU(자동차 통합 제어장치), HUD(전방표시장치),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등 전장부품 비중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다.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땐 주로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8인치 라인에서 TV, 모니터, 생활가전 등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을 늘렸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도 파운드리 업체들이 8인치 생산라인을 증설해 생산을 늘리려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미 반도체 생산 라인들은 수익성이 높은 12인치 공정에서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계 자동차 생산은 예상보다 67만2000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스는 지금까지 자동차 업체가 실제 감축한 규모는 56만4000대이며, 올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총 96만4000대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TSMC가 있는 대만 측에 이례적으로 반도체 증산을 요청했다.

서선욱 기자

## GS25 “명절 도시락, 반값에 드세요”

편의점 지에스(GS)25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가족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설 연휴를 보내는 1인 가구를 겨냥해 명절 도시락을 선보인 다.

GS25가 내놓은 '새해복많이반이소' 도시락엔 모듬버섯소불고기, 모듬전(4종), 우영잡채, 두부시금치버무리 등 명절 대표 음식 7종과 매콤오징어볶음이 담겼다. GS25 관계자는 “이 제품 중량은 일반 도시락 대비 1.2배다. 성인 남성이 먹어도 큰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푸짐하게 구성했다”고 했다.

GS25는 8~10일 명절 도시락 반값 할인 행사를 연다. 이 기간 GS25의 전용 앱 '더팜'을 통해 '새해복많이반이소' 도시락을 예약 주문하면 정가(6900원) 대비 50% 할인가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루 1000명, 총 3000명 선착



순이다.

GS25 관계자는 “명절 연휴 식당 역할을 한 편의점 기능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올해 설에는 더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를 위한 먹거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 “제주 관광객 줄어 생활불편 덜었지만, 먹고 살려면...”

### 제주관광공사, ‘2020제주도민 관광인식 조사’ 발표...긍정평가 높아져 불편해도 관광 활성화 해야...교통 체증·주차 문제 등 생활불편 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교통체증 등 생활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좋아졌으나, 사생활 침해 등 관광객에 의한 불편은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0 제주도민의 관광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 생활환경의 부정요소에 대한 몰음에 5점 만점 중 2.54점을 주면서 지난 2018년 2.25점보다 긍정 평가가 높아

졌다. 하지만 불편함, 치안불안, 사생활 침해 등 관광객과 관련한 부정요소에 대해선 지난 2018년 3.46점에 비해 2.63점으로 긍정 인식 비율이 낮아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지만, 관광객에 의한 불편·불안함은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공사는 분석했다.

또 관광지 방문 환경, 관광지·관광시설 추가 개발 등에 대한 인식은 2018년(2.87)보다 지난해(3.31)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관광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대한 응답자별 인식 차이를 비교하면, 코로나19가 관광에 미친 영향(지역안전, 생활환경 등)에 대해 일반도민(2.67)이 관광객(2.94)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해선 20대 3.16, 30대 2.99, 40대 2.90, 50대 3.03, 60대 2.92로 20대의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유나 기자

## 오전 주문, 오후 집 앞...롯데홈쇼핑 배송 더 빠르게

### 상품 분류 전담 인력 지원해 택배 기사 업무 부담 줄여

롯데홈쇼핑은 배송 속도를 높인 서비스 '와씨'를 도입해 이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와씨는 오전에 TV방송 상품을 주문하면 오후에, 오후에 주문하면 저녁에,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 배송해준다. 오전 9시에 주문하면 같은 날 오후 4시가

지 배달해주는 식이다. 롯데홈쇼핑은 “와씨 운영을 위해 상품 분류 전담 인원을 배로 증원하고, 물류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편했다”며 “이에 따라 상품 분류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고 물류센터 출고 이후 고객 배송까지 평균 6.3시간이면 가능해졌다”

고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객과 택배기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서비스로, 일반 택배 대비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만 배송 속도와 친절도 향상으로 잠재적으로는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롯데홈쇼핑은 상품 분류 전담 인력을 지원해 택배 기사 업무 부담을 줄였다.

기동취재본부

## 오리온, 밸런타인데이 한정판 초코파이 출시

오리온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초코파이 하우스 베리러브 초코파이'와 '오리온#간식이필요해 심쿵주의'를 출시했다.

베리러브 초코파이는 디지털 초코파이에서 기획한 한정판이다. 블루베리 시트에 라즈베리 크림과 마시멜로를 더하고, 딸기 초콜릿으로 커빙했다. 건조한 딸기 조각을 토핑하고, 딸기 파우더를 뿌렸다. '달콤 상큼 사랑의 맛'을 콘셉트로 패키지에도 하트 모양과 '러브'를 디자인했다. 전국 편의점과 네이비스토 등

온라인 쇼핑몰, 초코파이 하우스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간식이필요해 심쿵주의는 온라인 전용 베스트셀러 '초코가 필요해'에 연인과 하트 디자인을 더했다. '촉촉한 초코칩'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미즈' 등으로 구성했다. '너를 위한 선물' '맛있게 먹어' 등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 5종 모음집도 동봉했다. 쿠팡, SSG닷컴, G마켓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최이슬 기자

